



베스트셀러 連作으로 독서계를 휩쓸고 있는 김용옥씨. — 사진 통나무제공

詩에서 哲學까지

한동안 6권의 책을 동시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려놓기도 했던 화제의 인물 金容沃씨(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 ‘한 사람의 책이 이처럼 여러권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없었고, 단시 일내에 이처럼 많이 팔려나간 적이 없었다’는 이변을 낳았던 김용옥씨의 저서는 여전히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김용옥씨의 저서들이 가장 인기절정에 올랐던 것은 지난 6월초. 대형서점 인문사회과학 베스트셀러 집계결과 「절차탁마 대기만성」이 종로서적·교보문고·을지서적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아름다움과 추함」 「여자란 무엇인가」,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강의」 등이 각각 상위를 차지한다. 시집 「이땅에서 살자꾸나」까지 종로·교보에서 모두 7위에 오름으로써 서점계를 놀라게 했던 것.

이런 추세는 8월중순까지도 지속되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김용옥씨의 저서가 3~5권씩 올라 있다. 교보에는 「절차탁마…」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아름다움과…」 「여자란…」 「철학강의」 「東洋學…」 등이 여전히 올라 있고, 종로서적에는 「여자란…」이 2위, 동화서적에는 「철학강의」가 4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앞의 책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찾는 것과 함께 김용옥씨의 저술활동 역시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 ‘양심선언’을 하고 강단을 떠난 뒤 1년여 동안 그가 펴낸 책은 앞서 언급한 6권을 비롯, 올해초 절판된 번역소설 「루어

투어 시앙쓰」 상·하권, 한정판 漢詩集 「어찌 문헌단 말 있으리오」 등 모두 9권이나 된다.

지난해 3월 출간된 「여자란 무엇인가」는 육두문자의 남발로 한때 외설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 화제의 책이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회복, 즉 남성인 ‘맨(man)’에 대하여 性구별 없는 ‘르인(人)’의 회복을 주장, 여성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김용옥님을 일으킨 책으로 판매부수는 10만부를 넘어섰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는 85년 民音社에서 펴낸 뒤 절판됐던 것을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지난해 통나무출판사에서 다시 출간한 것. ‘번역’을 주제로 한문해석의 여러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금까지 5만부 이상이 팔렸다.

중고생을 위한 시리즈 첫책으로 내놓은 「철학강의」는 일상적인 소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간 이래 3만부 이상이 팔렸고, 교보에서는 올 상반기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이밖에 올4월 극단 ‘미추’의 창단공연작 「지킴이」 해설을 계기로 쓴 美學이론서 「아름다움과 추함」은 2만부가 팔렸고, 가장 최근 저서인 「절차탁마 대기만성」은 요즘 서점에서 가장 많이 찾아지는 책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김용옥씨는 올해안으로 「氣哲學이란 무엇인가」 「新老子校註」 「여자란 무엇인가 속편」 「교육이란 무엇인가」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9월중 출간예정인 「氣哲學…」은 그의 사상체계를 일괄하고 있는 중심테마인 氣철학

시들지 않는 ‘金容沃’ 붐

6권이 베스트셀러… 곧 5권 또 나와

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수 재직시 발표했던 동일제목의 논문을 비롯, 다양한 잡문도 수록할 예정. 「신노자교고」는 노자에 관한 古本을 제시하고 원본과 아울러 王弼의 註와 김용옥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으로 출간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책’을 베스트셀러에 올린 김용옥씨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충남 천안에서 의사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보성중·고를 거쳐 고려대 생물학과에 진학했다. 병으로 중퇴한 뒤 신학으로 방향을 돌려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철학에 뜻을 두고 고려대 철학과에 또다시 입학한다. 졸업 후 무려 11년간이나 국립대만대학, 일본 동경대학,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82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권 읽어보았지만 재탕 중복이 없고, 책을 덮고나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독자 이소영씨(27·서울극장)는 말한다. 또 대학서점에서 근무하는 이영희씨는 “시대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의사를 구사했으며, 교수의 체통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엿보는데 하다”고 말하고 있다. “박학다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서 통쾌하다”는 김수경씨(25·학생)의 말에서도 이러한 요인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김용옥씨가 화제의 인물이라는 것도 인기를 끄는 한 요인이라고 서점의 한 관계자는 분석한다.

반면 그의 저서를 ‘잡다한 이론의 나열’로 평하는 냉정한 반응도 볼 수 있다. S대 L교수(동양철학)는 그의 저서가 인기를 끄는 것은 학문적 성과라기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지 않은가 보고 있다. 그는 “김용옥씨의 철학자가 지금까지와 다른 스타일로 쓰여졌기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남들이 터부시하던 것을 과감히 파헤치는 파괴적인 면에서는 매력 있으며, 이 태도는 철학계에 공헌할 수도 있는 선구적 태도”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동서양철학을 섭렵하면서 인기있는 구절을 장황하게 나열하는데 불과하며, 논리적 전개가 결여되어 있고 학문적 허점이 드러난다”고 분석한다.

한편 김용옥씨의 저서 9권을 모두 출판한 바 있는 통나무출판사(대표 元皇喆·35)측은 인기의 요인을 그가 화제의 인물이어서도, 해박한 지식, 통렬한 비유로 유명해서도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요구에서 오는 시대적 욕구라고 말한다. 그는 “김용옥씨의 주장은 건설을 위한 파괴과정이며, 철저한 파괴는 새로운 쌓음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새 가치관에 독자들이 매료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김용옥씨의 책은 날개돋힌듯 팔렸고 수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 ‘모든 세계는 존재(being)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becoming)하는 것’이 그의 사상적 핵심이고, 그러므로 ‘연장개념 위에서 있는 모든 철학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보면 앞으로 새로움을 줄 책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점가에서는 상반기 독서계를 휩쓸었던 김용옥씨의 선풍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순 기자

식발과 두루마기 차림의 그는
외모만큼이나 기발하고 자유분방한
사상으로 한 시대의 독서계를 뒤흔치고
있다. 그가 일으킨 회오리 바람은 당분간
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할 것 같다.

년9월 고려대 철학과 부교수로 부임했다.

김용옥씨는 지난해 4월8일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서명문제로 학내가 한창 시끄러울 때 독자적인 ‘양심선언’을 하고 교수직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그의 양심선언은 ‘정치발전이 없는 막막한 현실에서 지식인의 고뇌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 ‘서명교수대열에 끼지 못한 뒤늦은 해명’이라는 양갈래의 상반된 평가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식발과 두루마기 차림의 철학자라는 것도 눈길을 끌었고, 「여자란 무엇인가」로 외설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한 4·13 개헌유보조치에 ‘왕정이나 민주나’하는 성명을 내고 단식으로 항거하기도 해, 이른바 ‘화제의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다양한 독자층, 상반된 評價

어쨌든 김용옥씨의 책은 대학생들은 물론 중·고생, 직장인, 80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서점가는 전한다. 그의 저서가 이렇듯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독자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통렬한 비판, 기존의 어느 철학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필치에 매료된다고 말한다.

“기존의 철학서가 난해하고 읽기 어려운 반면, 김용옥씨의 책은 핵심을 꿰뚫어 쉬운 말로